

광주대 대동제 ‘DELIGHTY’ 성료…8000명 모여 ‘열기’

학생·지역민·수험생 한자라…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
김동기 총동창회장·KT&G, 학생복지 발전기금 전달

광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 수험생 등 8000여명이 캠퍼스에 모여 가을 축제를 즐겼다.
광주대는 제42대 ‘영원’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축제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대동제 ‘DELIGHTY: 빛나는 오늘, 우리의 영원’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교내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재학생 장기자랑과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비롯해 체험 부스, 주막,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동진 총장은 축사에서 “순풍이 기다려온 대동제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캠퍼스 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행사에 앞서 김동기 광주대 총동창회장과 KT&G 전남제주본부는 학생복지 향상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오찬영 총학생회장에게 각각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치어리딩팀 ‘그린라이트’의 오프닝 공

연으로 시작된 축제에는 AHOF, PH-1, MEOVV, 권은비, N.Flying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오찬영 총학생회장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학업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대학의 개방성과 공동체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학생 안전요원과 교직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구역별 담당 업무와 비상상황 대응 요령을 공유했다.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 이동 동선과 밀집도를 점검하며 안전한 입·퇴장을 지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지난 7일 광주대 제42대 ‘영원’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축제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대동제 ‘DELIGHTY: 빛나는 오늘, 우리의 영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 수험생 등이 캠퍼스에 모여 가을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광주대학교

목송산업개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4회 연속 인증

2019년 호남 유일 선정 이후 재인증 이어가…현재 25명 근무
누적 120명 고용·보훈부 장관 표창…안정적 사회정착 뒷받침

목송산업개발㈜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4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제14회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7일 목송그룹 교육장에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의 제대군인 채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는 24개 업체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24개 업체가 재인증됐다. 목송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호남지역

에서 유일하게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이번까지 4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인증기업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목송그룹의 주력 자회사인 목송산업개발은 주택관리와 기계설비, 정비·미화, 근로자 파견, 소독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 채용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금까지 12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현재 목송산업개발에서 근무하는 제대군인도 25명에 달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9월에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



7일 목송그룹 교육장에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식’에서 4회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목송산업개발 관계자와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목송산업개발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제대군인은 군 조직에서 체득한 리더십과 근면·성실한 자세, 업무 추진력, 책임감 등을 두루 겸비한 인재”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정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은 “제대군인의 투철한 책임감과 리더십은 기업 경쟁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4회 연속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정 기자 hajong2@gwangnam.co.kr

“공직자의 힘 모아 활력 넘치는 목포 만들 터”

강종철 제52대 목포시 부시장 취임

“목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활력과 역동의 도시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공직자들에게 있다.”
제52대 목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강종철 신임 부시장(사진)은 7일 취임사에서 “늘 낮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목포시 공직자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시장은 전남도 총무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인재육성교육국장,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리 등을 두루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을 맡아 광역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현안 대응 능력과 조직 소통 역량을 인정받았다.

목포시는 지난 6일 조석훈 부시장이 이임함에 따라 강종철 부시장을 신임 부시장으로 맞았다. 조석훈 부시장은 2025



년 7월 제51대 목포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3개월간 시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주요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이끌며 시정 안정에 기여했다.
강종철 목포시장은 “강종철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역량을 갖춘 행정가로 목포시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자다”며 “신임 부시장과 함께 목포의 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제5회 무안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호응’

군.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영화·공연 등 공감의 장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남악중앙공원에서 ‘제5회 무안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상에 외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권리중심 노동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권리중심 노동자 공연, 개막작 ‘잘 안녕’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가 열렸고, ‘김기영의 조각들’과 폐막작 ‘삶이 회복이다’ 등을 상영, 관객들과 소통하며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군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장

애인의 삶과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여론이다.
안재성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가 장애인에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과 목소리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국제라이온스협회, 여수시에 1500만원 상당 후원

쌀 280포·식품 꾸러미 270박스
저소득 가구·복지시설에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 지구 제1·2지역이 지난 6일 여수시청에서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철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 지구 총재, 장유익 제1지역위원장, 신완수 제2지역위원장, 제1·2지역 소속 클럽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백미 10kg 280포와 식품 꾸러미 270박스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철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 지구 총재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다가가 도움을 드리는 것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 지구 제1·2지역은 지난 6일 여수시청에서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이 라이온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국제라이온스

협회 355-B3(전남동부) 지구 제1·2지역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가 지역사회의 곳곳에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

동부) 지구는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개 지역, 70개 클럽, 289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2지역은 여수지역 19개 클럽, 58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송원근 기자 swg318@

광주 동부경찰, 충장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CCTV·비상벨 작동 여부 집중 확인

광주 동부경찰이 제23회 추석의 충장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일대 안전점검을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은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사장 일대 공중화장실과 방범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요소와 사각지대도 함께 살피며 현장 안전관리 실

태를 점검했다.

동부경찰은 축제기간에도 행사장 주변 공중화장실과 방범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유동인구가 몰리는 장소로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축제기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을 통해 안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무안군은 최근 남악중앙공원에서 ‘세상에 외치다’를 주제로 ‘제5회 무안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를 시민들의 호응 속에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